

가짜揮發油를 뿌리뽑자

金 乾 治

〈大韓石油協會 弘報室長〉

최 근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짜휘발유에 대해 정부와 精油業界의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최근 1억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 휘발유 유사제품 제조자나 제조장소를 신고할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휘발유 유사제품 신고자포상제도」를 신설, 4월 15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휘발유 유사제품 방지대책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온 가짜휘발유를 발본색원하려는 정유업계와 정부의 강력하고도 확고한 意志를 의미한다. 가짜휘발유는 어제 오늘에 비롯된 문제는 아니지만,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정유업계와 정부가 강력한 가짜휘발유근절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脈絡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가짜휘발유는 그동안 정부의 조정명령과 精油業界의 노력으로 유통이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량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 전체 휘발유유통량중 가짜휘발유의 유통량이 20%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가짜휘발유의 正体는 무엇인가. 가짜휘발유는 溶劑類인 솔벤트에 폭발촉매제인 톨루엔, 아세톤 등 비교적 휘발성이 강한 化工약품에다 약간의 휘발유를 섞어 만든 類似제품을 말한다. 다시 말해 휘발유 半, 化工약품 半정도를 섞어 만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가짜휘발유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를 원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은밀하게 팔려진다. 이 경우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은 하루의 영업이 끝난 하오 11시 40분쯤 이틀만이 알고 있는 단골거래처로 차를 몰고가 다음날 쓸 가짜휘발유를 공급받는다고 한다. 가짜휘발유제조업자들이 가짜휘발유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솔벤트, 톨루엔 등의 化工약품은 주로 시중 化工약품상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化工약품상 주인들은 세탁업자나 도금업자들에게 소량으로 파는 것보다 현금으로 대량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집까지 배달해주는 등 자기들끼리 선의의 경쟁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같은 가짜휘발유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가격면에서 진짜휘발유와 가짜휘발유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보통휘발유 가격은 0당 6백60원(특별소비세 2백81원80전 포함)인데 비해 가짜휘발유는 0당 2백70원~4백원이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짜 휘발유가 2백60원~3백90원 정도가 싼 것이다.

둘째는 제조면에서 가짜휘발유 원료의 구입이 용이하고, 기술면에서도 제조가 간단하다. 가짜휘발유 원료인 솔벤트와 같은 溶劑와 BTX는 일반적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化工약품상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溶劑 등은 현행법상 품질검사대상품목이 아니므로 쉽게 제조할 수 있다.

세째는 유통면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가짜휘발유 거래는 판매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유통조직이 은폐되어 있다. 또 가짜휘발유나 그 원료는 흔히 加空去來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짜휘발유제조자와 중간판매상들은 수시로 商號와 장소, 대표자 이름을 바꾸어가며, 교묘하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가짜휘발유는 요즘들어 서울, 釜山, 大邱 등 건국의 주요도시에서 그 뿌리를 깊게 하고 있으며, 이제는 도시변두리, 세차장, 정비공장은 물론 주택가까지 파고 들어 그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서울시내의 경우, 대부분의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들은 『LPG택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시운전기사들이 지금까지 가짜휘발유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값이 싸고 이를 사용함에 따른 직접적인 公害가 쉽게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하루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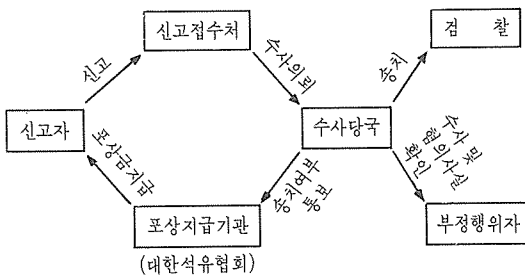
그러면 이 가짜휘발유를 사용함에 따른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짜휘발유가 人體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자동차의 고장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짜휘발유의 원료인 톨루엔, 키실렌, 벤젠 등은 연소할 때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生成度가 높아 인체에 유해하며, 또 진짜휘발유나 輕油보다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어 대기를 오염시키고, 가짜휘발유를 사용한 자동차는 녹킹현상이 생기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 部品の 고장과 마모현상이 빨리 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人體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 톨루엔은 장시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피로, 쇠약, 착란증세를 일으키며, 간과 콩팥을 손상시키고 황달과 백뇨현상을 가져온다. 키실렌은 농도가 짙어지면 마취증세가 생기며, 메탄올은 노출 후 6~12시간이 지나면 구토, 복통, 시각장애를 일으키고, 심하면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벤젠은 호흡기 점막에 심한 자극과 염증을 일으키며, 계속 흡입하면 집속부위에 출혈을 가져오고, 주로 중추신경에 자극을 주어 두통이나 의식을 잃게 한다.

이와 같은 公害문제 이외에도 가짜휘발유는 국가재정면에서 상당한 稅收결함을 가져오고 있다. 다시 말해 가짜휘발유가 유통되는 물량 만큼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정부당국에 의하면, 83년의 경우, 가짜휘발유의 유통으로 모두 6백15억원의 稅收결함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휘발유 유사제품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單位 : 원 / 전)

	포 상 금	
	최 저	최 고
제조사 또는 제조장소 신고	100만	300만
판매자 또는 판매장소 신고	주 유 소	최고 200만
	세 차 장 주차장등	30만 50만
운송자, 보관자 또는 보관장소 신고	50만	100만

이제 가짜휘발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되었다. 가짜휘발유는 妖怪처럼 횡행하면서 사회전반에 독소를 뿜어내고 있다.

가짜휘발유를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기 위해 업계, 정부, 소비자가 뜻과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번에 정유업계가 제시한 대책은 어디까지나 精油社 단계의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다. 가짜휘발유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우선 稅制와 가격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며, 현재 100% 부과되고 있는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를 인하여 진짜휘발유와 가짜 휘발유의 가격차이를 없애야 할 것이다.

또 가짜휘발유를 근절시키려는 업계와 정부의 의지가 結實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유통구조의 개선, 법령의 개정보완과 같은 강력한 政策意志의 뒷받침과 함께 일반소비자 및 국민들의 협조와 호응이 필수불가결하다. *

□ 石油產業動向 □

태평양 지역의 정제원료공급 과잉전망

서태평양지역의 석유제품시장은 1980년대 말까지 증질 및 경질제품의 공급과잉으로 점차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에 걸쳐 서태평양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2 배로 증가될 전망이며 가스와 함께 생산되는 Condensate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동시에 현재 태평양 지역의 나프타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점차 늘어나 공급과잉으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공급의 약 80%를 구성하는 heavy condensate는 보통 정유공장의 정제원료로 사용되며 60~80% 정도 나프타를 생산한다. light condensate는 석유화학용 정제원료로 사용되어 나프타와 직접적인 경쟁상태에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 추가로 공급되는 condensate 및 나프타는 정제원료로서 보다는 보일러용 연료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공급과잉은 condensate 및 나프타의 가격을 인하시키고 가솔린 가격에 인하압력을 가할 것이다. condensate 및 나프타의 공급증가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condensate는 천연가스의 부산물로 생산된다. 태평양의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정유공장의 가동율을 높이고 나프타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새로운 OPEC 정제능력 및 천연가스 생산능력으로 인해 중동지역으로부터 태평양 시장으로 condensate 및 나프타 수출이 증가될 것이다.

태평양지역 내외의 몇가지 요인으로 condensate 및 나프타의 공급과잉현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석유화학용 정제원료로서 일본의 나프타 시장은 중동이 저렴한 천연가스를 토대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을 증가시킴에 따라 침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condensate의 중요한 공급국인 인도네시아가 나프타 및 휘발유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정유시설을 고도화하고 있다. condensate공급은 오스트레일리아, 알제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타이, 파푸아뉴기니아 및 중공 등의 천연가스 프로젝트로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condensate 및 나프타의 과잉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몇가지 요인도 있다. 미국 서해안에서 증질원유의 생산이 증가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condensate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정유공장은 새로운 고도화 시설이 건설되는 동안 높은 휘발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7년까지 condensate 소비가 50% 늘어날 것이나 1987년 이후에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한국 및 대만의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늘어 condensate 및 나프타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점축분해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방법, 나프타를 가솔린으로 개질을 증가시키는 방법, 가솔린 소비를 촉진하는 정부정책, 현지 생산된 나프타의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석유화학제품에 보호관세를 부과하는 방법 등은 공급과잉에 대처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condensate의 최고가치는 단순히 원유와 혼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